



가을 속으로... 13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극락교 영산강변에 코스모스와 억새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극락교에서 송촌보까지 10km구간의 영산강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15 영산강 억새 생태문화제'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말 못했던 고민...손편지의 위로

청년문화허브, 유·스퀘어 G-28 보관함 개설 편지 상담

취업·수능·연애 고민 가득...용봉동에 우체통 추가 설치 계획

자신과 같은 청년들에게 주고 싶어 박카스를 두고 간다는 공무원시험 준비생, 남자친구와 한바탕 싸우고 난 뒤 들러서 목캔디를 두고 간다는 여성,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취업준비생,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문구를 남긴 이,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걱정하는 고3 수험생, 그리고 답장...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1번 출구 앞 G-28번 보관함<사진>은 청년들의 고민과 이들을 위로하는 손 편지로 가득하다.

광주지역 청년문화단체 '청년문화허브'(대표 정두웅)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개설한 이 보관함은 '어떤 고민이든 상담해드립니다. 나미야 잡화점'이다.

'G-28번' 보관함은 아내를 잃고 점점 생기를 잃어가던 '나미야 할아버지'가 편지로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점차 자신은 물론 서로가 치유를 받는 내용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고민, 꿈 등을 손 편지로 보내면 '나미야 할아버지' 역을 맡은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청년 등 6명의 편지 고민 상담 활동가들이 답장을 해주는 형식이다. 보관함을 통해 캔디 등 소소한 간식을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누구라도 'G-28번' 보관함을 찾아가 '찾음' 버튼을 누른 뒤 비밀번호 '1908392690'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은 "취업준비생, 커플, 상처를 간직한 많은 사람의 고민거리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편지와 함께 박카스 한 상자를 선물하고 갔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오서



유·스퀘어 1번 출구 'G-28번' 보관함은 취업·연애 등 고민이 담긴 손 편지와 서로를 격려하는 간식으로 가득 차 있다.

서 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니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생각해 봐요"라는 답장을 보관함을 통해 보냈다.

청년문화허브는 전국에서 오는 손 편지 고민을 상담해주기 위해 북구 용봉동(1197-4번지 2층) 사무실에 설치할 우체통을 제작 중이다. '나미야 잡화점'이 청년들에게 공감

을 얻고 있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다. 최근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 부재로 비롯된 비극을 다룬 영화 '사도', 30대 CEO와 70대 인턴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영화 '인턴'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익명으로 고민을 상담하는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어라운드', '모씨', '센티' 등 일명 '힐링 어플'들은 익명으로 글을 남기면 다른 사용자들 역시 익명으로 댓글, 하트 등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공간이다.

정 대표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와 고민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지만 부모님과 친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미야 잡화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7, 해질 18:00, 달돋이 07:27, 달지름 18:50

일교차 커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2/24	보성	맑음	6/24
목포	맑음	14/23	순천	맑음	9/25
여수	맑음	13/23	영광	맑음	9/24
나주	맑음	7/25	진도	맑음	11/25
완도	맑음	13/25	전주	맑음	11/23
구례	맑음	6/25	군산	맑음	11/22
강진	맑음	8/25	남원	맑음	7/22
해남	맑음	6/25	축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7/24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면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44	07:58
여수 <td>15:10</td> <td>20:19</td>	15:10	20:19
	09:43	03:16
여수 <td>21:48</td> <td>15:43</td>	21:48	15:43

주간 날씨

날짜	15일(목)	16일(금)	17일(토)	18일(일)	19일(월)	20일(화)	21일(수)
날씨	☀	☀	☀	☀	☁	☀	☀
기온	12/24	12/24	11/24	12/24	12/24	12/24	11/24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보통: 운동
- 낮음: 산불

성행위 설명 듣기...살려달라 애원하기...욕조에 머리 박기...

9살 초등생 '지옥의 새엄마 견디기'

물고문·살해 위협 4년간 학대

순천지원, 계모에 징역 1년

"성인집지 보면서 새 엄마가 들려주는 성행위 설명 듣기, 스케치북 머리 위로 들고 2시간 동안 벌서기, 자살하라는 말하며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지려는 새 엄마에게 용서 빌기, 이유도 없이 눈을 감고서 자신의 얼굴을 검게 색칠하는 새 엄마 보고 울면서 견디기, 욕조 물 속에 머리채 잡혀 15분이나 잠수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이런 불행이 4년간 이어진다면 아이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여수에 사는 초등학생 A양이 9살이던 지난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자신의 계모에게 당했던 학대의 기록이다.

불행은 A양의 아버지가 새 엄마 B씨(45)와 재혼하면서 시작됐다. 계모 B씨는 결혼한 지 1년 만인 지난 2011년 10월 여수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A양에게 스케치북을 머리 위로 들고 서있게 했다. '다신 엄마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쓰게 한 뒤였다. 2시간 동안 계속됐던 학대의 이유는 '하라는 걸거지'를 하

지 않았다'계 전부였다.

지난 2012년 5월 계모 B씨를 당시 10살이던 A양에게 성인집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서 낮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북여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두들겨 맞아야 했고 머리채를 잡혀 '물고문'을 당한 뒤 알몸으로 집밖에 쫓겨난 일도 있었다. 학교 과제로 주어진 발표연습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청태이프로 입막음을 당하고, "(새)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기도 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A양의 불행은 계모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순천지검에 적발되면서 멈췄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택택 판사는 13일 상습적으로 A(13)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계모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모 B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A씨가 반성을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전남 국정교과서 반발 확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광주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광주시 서구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려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과와 함께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러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격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스스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면서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회귀하려고 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광주진보정치포럼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유신회귀, 국정교과서를 필미로 하는 이념논쟁을 중단하

라"며 "국민들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현정권의 모습에 유신회귀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에는 문화예술인·변호사·시민단체·의사·교수 등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민주주의 광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불복종 광주시민 1000인 선언'을 진행

한다.

이들 단체는 14일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선언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결의대회'(16일), 청소년 선언(19일), 학부모 선언(20일),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대회(24일) 등을 잇따라 전개하고 다음달 중 '한국사 국정화 바로 알기 및 대응 대시민 강연회', '한국사 국정화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

2015 여수시민의날

제17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기념식
10.15.(목) 10:00
진남경기장

체육행사
10.15.(목)~16.(금)
진남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문화예술행사
10월중
거북선공원, 시민회관, 이순신광장 등

주최 여수시 주관 2015여수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여수시통합체육회